

폴란드의 최근 정치동향(연정구성 및 조기총선)

□ 조기총선과 연정구성의 선택을 두고 정치 혼란 당분간 지속

- '법과 정의당'(PiS당)은 지난 9월, 총선 승리 이후 '시민강령당'(PO당)과의 연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소수 야당과 내각을 구성하였으나, 각료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및 주요 법안(부정부패방지청 관련 법안 등) 처리, 예산안 통과 등 현안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에 PiS당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(Jaroslav Kaczynski) 당수는 금년 1월 18일, 향후 6개월 동안 마르친키에비츠(Marcinkiewicz)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를 지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야당들에게 동 내용의 안정화 협정 체결을 제안함.
- 이와 관련, PiS당은 '폴란드 가족리그'(LPR) 및 '농민당'(PSL당)과 협의를 마치고, 준 연정(quasi-coalition)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'자주방위당'(Self Defence당)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.
- PiS당과의 협의과정에서 LPR은 연료한 극빈자들에 대한 퇴직자 매월 보너스 지급을, PSL당은 2007년까지 농민들에 대한 0% 연료소비세를 각각 요구함(Self Defence당은 조기총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피력).
- 한편, PO당의 투스크(Tusk) 당수는 동 협약이 소수 야당에 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, 야당들이 조기총선의 재앙을 회피하기 위해 모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, PiS당의 안정화 협정 제안을 거부함.

- 투스크 당수는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(Lech Kaczynski)과의 면담(1월 19~20일) 후 조기총선의 위험은 멀어졌다고 평가하였으나, 연정 가능성은 커지지 않았다고 언급함.
- 그러나, 이러한 제휴 관계에 대해,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략한 민주좌파연합(SLD)측은 PiS당과 PO당간의 연정이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며, 조기총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□ 예산안, 연정구성 및 조기총선에 대한 향후 전망

- 2006년 예산안은 1월 24일 밤 소수 야당들(LPR, PSL당 및 Self Defence 당)의 지원하에 찬성 269표, 반대 180표로 의결됨.
- 결과적으로, 이들 소수 야당의 지원하의 예산안 통과로 PiS당이 승리함에 따라 조기총선 가능성이 당분간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으나, 이는 단지 “예산 연정(budget coalition)”으로,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여전히 팽배하고 있음.
- 한편,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, PiS당(37%), PO당(29%), Self Defence당(7%), SLD(6%)로 여전히 PiS당은 과반수의 지지도를 얻지 못하고 있어, 폴란드 국민들은 조기총선을 바라지 않는 대신, PiS당과 PO당간의 연정 구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(이는 선거에 따른 과도한 예산부담 우려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).
-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정치상황의 안정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, 일부에서는 PiS당과 PO당간의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.

폴란드주재원 및
전문연구원 최은경 (☎3779-6665) 제공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